



광양시, 중동공원 내 공영주차장 조성

광양시가 중동근린공원에 방문하는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도심지 주택 상가 밀집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앞장서 나가고 있다.

시는 오는 10일 중동근린공원 내 부설 주차장 82면을 조성 완료하고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1억8천4백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지난 3월 시 도시계획 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공원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등의 행정절차를 거쳤

**1억8천4백만 원 투자, 총 82면…10일 무료 개방
장애인·노약자·임산부 배려 주차장 5면 조성**

다.

특히 이번에 조성한 주차장은 공공시설의 여성친화적 시설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영주차장으로는 처음으로 배려 주차장 5면을 조성됐다.

시는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의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여성친화도시

지점에도 한 발짝 다가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티프리자 앞 임시주차장을 자주 이용하는 한 시민은 “그동안 공원 내 주차장이 부족해 종양통로에 이중주차를 하는 등의 불편이 많았다”며

“이번에 생긴 주차장 덕분에 주차하

기가 더 편해질 거 같다”고 말했다.

신오희 교통관리팀장은 “올해 상반기까지 1,724면의 공영주차장 조성을 마무리해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고 있다”며, “민선6기 시장 공약사항인 공영주차장 2,000면 확충을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도록 주택과 상가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주차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양=김충권 기자



화순군, 임대농기계 배송 서비스 확대

배송기계 4종에서 64종 협력에 배송 서비스

화순군은 농기계임대를 활성화하고 차량이 없는 농기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임대농기계 배송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화순군 동업기계임대사업소는 7월부터 능주면 본소와 동복면 분소 등 2곳에 보유하고 있는 64종의 임대농기계를 협력에 배송 서비스하기로 했다.

그 결과 매실소금은 지난 6월 중순, 매실드레싱은 3월 초에 각각 특허를 획득했다.

등록된 특허는 ‘매실 착즙액을 함유한 기능성 소금 및 그 제조방법’과 ‘매실 분말을 함유한 셀리드 드레싱 조성을 및 그 제조방법’이다.

순천시는 매실소금을 한국매실사업단에서 상품화하여 시판하고 있으며, 매실드레싱도 적정 업체를 찾아 상품화할 예정이다.

한편, 순천매실의 재배면적은 전국의 20% 규모인 1300㏊로, 순천시는 및 충청형 재배교육, 전동가위 등 기자재 지원, 전정사업단 운영, 병해충 및 기상재해 방제 스마트 기상정보 제공 등을 통해 최고품질의 매실을 생산하고 있다.

순천=김종영 기자

군은 이와 관련, 일손부족 농기의 영농면의 제작을 위해 2009년부터 농기계 임대사업을 시작해 능주면 민수리 본소에 64종 227대, 동복면 천변리에 41종 133대 등 64종 380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2,975대 등 총 14,345대의 농기계를 임대해 주는 등 해마다 임대실적이 10% 이상 늘었다.

농기계 임대가 꾸준히 늘고 있는 데는 값비싼 농기계 구매로 인한 농기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가장 많이 활용되는 관리기, 콩 탈곡기, 땅 속작물수확기 등의 농기계를 지속적으로 확보했기 때문이다.

또한 농번기철에는 임대사업소 휴일근무를 통해 고장난 농기계를 수리해 주는 등 농업인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해왔다.

농업기술센터는 임대농기계를 협력에서 배송 받아 임대 불편 없이 영농에 전념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임대농기계 배송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과 사용 조작·정비 숙달을 위해 4일부터 6일까지 20명을 대상으로 농기계 안전 교육에 이어 하반기에도 정비기술반 등 4회 90명을 대상으로 안전 교육을 하기로 했다.

화순=박순칠 기자

광양시, 범죄 예방 비상벨 점검 마쳐

공원 내 화장실 등 88대 비상벨 작동 여부 등 점검

광양시는 6월부터 ‘여성·아동이 안전한 도시 만들기’를 위해 공원내 화장실과 어린이집, 초등학교 앞에 설치된 88대의 비상벨을 일제 점검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비상벨은 시민 누구나 성범죄 등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벨을 누르면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 안전 시스템이다.

비상벨을 누르면 경광등과 사이렌이 울려 외부에 도움을 청할 수 있을 뿐 아니라 CCTV통합관제센터로 연결되어 상주하는 경찰에게 직접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이번 일제 점검에서는 비상벨

정상작동 여부와 음질 상태, 비상벨 작동시 CCTV통합관제센터 내 신속한 대응 태세 등을 종합적으로 이뤄졌다.

시는 이번 점검결과 대부분 정상작동이었으나 음량 조절 등을 협장에서 즉시 조치했으며, 결선으로 인해 미작동중인 비상벨 1대를 7월 초까지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시민참여단이 수시로 점검 활동을 펼쳐 여성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가 안전한 도시 건설에 시민과 공무원이 함께 힘을 모아 나가고 있다.

광양=김충권 기자

순천시, 음식문화 개선 실천 결의 모아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으로 2천만원 예산투입 연구 결과



순천시는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문화건강센터 다목적홀에서 진행한 일반음식점 영업자 12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위생교육에서 외식업순천시지부와 함께 음식문화개선 실천 결의대회를 가졌다.

결의대회에 참석한 영업자들은 ▶청결한 주방관리로 식중독 예방 ▶푸짐한 상차림 지양하고 낭비 없는 음식문화 정착 ▶음식 조리 시 위생모자용 생활화 ▶맛깔스런 남도 음식으로 관광객 맞이에 최선을 다할 것 등을 결의했다.

행사에 참석한 조충훈 시장은 ‘외식업 협주소와 비전’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실시하고 참석자들에게 외식업 경영형성을 위해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부단한 노력과 변화를 추구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위생교육에서는 음식점 영업자가 알아야 할 식품위생법 해설, 식중독 예방, 식품의 안전관리 및 청결서비스 등 다양하고 유익한 내용이 전문강사의 강의로 진행됐다.

또 음식문화 개선 및 나트륨 줄이기 등 홍보 동영상은 상영하고, 멀어먹기 집계·국자, 앞접시, 위생모자, 수저받침대 등 위생용품을 전시하여 음식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했다.

김윤자 보건위생과장은 “이번 결의대회와 교육이 음식점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리며, 전민 관광객 시대를 대비하여 보다 나은 친절 서비스 제공과 청결한 외식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종영 기자

나주 호빌스 여자씨름단 창단식 가져

노문단 선수단장·김계중 감독 등 10명 선수단 규모



나주 호빌스 여자씨름단(감독 김계중)이 지난 6월 30일 나주시 호텔 코어 연회장에서 창단식을 가졌다.

이날 창단식에는 대한씨름협회 김

수단장과 김계중 감독을 필두로 ▲무궁화급(80kg 이하) 이희연, 김무영 선수, ▲국회급(70kg 이하) 조상미, 김주연 선수, ▲제배급(60kg 이하) 강원영, 이어란, 정아람 선수 등 10명의 선수단으로 꾸려져 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80~90년대 프로야구와 함께 최고 인기를 누리던 씨름이 최근에는 다른 인기 스포츠 종목에 밀려 쇠퇴기에 있으나 최근 거제시, 영암군에 이어 우리 지역에서도 씨름단이 생겨남에 따라 이번 창단식이 고유 민속경기인 씨름의 부활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

이라면서, “나아가 지역 초·중·고 씨름 꿈나루 육성은 물론,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지역 농특산물 홍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민속씨름의

의 발전을 함께 할 구례군 반달곰씨름단, 양산시 콜핑씨름단, 거제시청 여자씨름단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나주 호빌스 씨름단은 노문단 선

수단장과 김계중 감독을 필두로 ▲무궁화급(80kg 이하) 이희연, 김무영 선수, ▲국회급(70kg 이하) 조상미, 김주연 선수, ▲제배급(60kg 이하) 강원영, 이어란, 정아람 선수 등 10명의 선수단으로 꾸려져 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80~90년대 프로야구와 함께 최고 인기를 누리던 씨름이 최근에는 다른 인기 스포츠 종목에 밀려 쇠퇴기에 있으나 최근 거제시, 영암군에 이어 우리 지역에서도 씨름단이 생겨남에 따라 이번 창단식이 고유 민속경기인 씨름의 부활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

이라면서, “나아가 지역 초·중·고 씨름 꿈나루 육성은 물론,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지역 농특산물 홍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민속씨름의

의 발전을 함께 할 구례군 반달곰씨름단, 양산시 콜핑씨름단, 거제시청 여자씨름단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나주 호빌스 씨름단은 노문단 선

수단장과 김계중 감독을 필두로 ▲무궁화급(80kg 이하) 이희연, 김무영 선수, ▲국회급(70kg 이하) 조상미, 김주연 선수, ▲제배급(60kg 이하) 강원영, 이어란, 정아람 선수 등 10명의 선수단으로 꾸려져 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80~90년대

프로야구와 함께 최고 인기를

누리던 씨름이 최근에는 다른 인기

스포츠 종목에 밀려 쇠퇴기에

있으나 최근 거제시, 영암군에

이어 우리 지역에서도 씨름단이

생겨남에 따라 이번 창단식이

고유 민속경기인 씨름의

부활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

이라면서, “나아가 지역 초·중·고

씨름 꿈나루 육성은 물론,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지역

농특산물 홍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민속씨름의

의 발전을 함께 할 구례군 반달곰

씨름단, 양산시 콜핑씨름단, 거제

시청 여자씨름단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나주 호빌스 씨름단은 노문단 선

수단장과 김계중 감독을 필두로 ▲무궁화급(80kg 이하) 이희연, 김무영 선수, ▲국회급(70kg 이하) 조상미, 김주연 선수, ▲제배급(60kg 이하) 강원영, 이어란, 정아람 선수 등 10명의 선수단으로 꾸려져 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80~90년대

프로야구와 함께 최고 인기를

누리던 씨름이 최근에는 다른 인기

스포츠 종목에 밀려 쇠퇴기에

있으나 최근 거제시, 영암군에

이어 우리 지역에서도 씨름단이

생겨남에 따라 이번 창단식이

고유 민속경기인 씨름의

부활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

이라면서, “나아가 지역 초·중·고

씨름 꿈나루 육성은 물론,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지역

농특산물 홍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